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말씀 시작>

오늘은 2021년 4월 27일이에요. 금주 말씀 나갔죠. 시편 28편 5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도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다윗이 말한 것은 그 시대의 그들은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을 사울 왕이 그렇게도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모사하고 각종 사울이 다윗을 하는 일을 막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사울이 항상 다윗을 괴롭혔고 막고 오히려 하는 일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중심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지으신 일을 생각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행하는 일들을 생각지 않고 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일들을 파괴하고 건설치 않는 일을 봤습니다. 이걸 보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쪽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안 한 것은 다 무너뜨렸어요. 아담, 하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설치 않고 파괴하셨고 오히려 형벌의 역사를 맞게 되었죠. 또 가인들이 하는 짓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고로 파괴하셨고 또 노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치 않겠다.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노아 그 자손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약속 받아

야 해요. 바벨탑 같은 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건설하지 못하게 했어요. 잘 들어야 해요. 그들에게 약속한 거지 이 시대에 약속한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심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면 심판하지 않는다. 이제 비가 와서 떠나지 않게 해주리라. 그 후로는 비가 와도 떠나려가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약속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건설한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시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의 모든 구약의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보자. 이와 같이 구약도 그러해 왔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가나안 복지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불만, 불평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파괴했습니다. 건설치 않았습시다. 그 가는 길을 못 가도록 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을 구약에서 크게 볼 수 있어요. 불만, 불평하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괴시킨다 했습니다.

이 시대 본문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성약 시대예요. 성약 말씀을 보겠어요. 너희가 주가 시킨대로 하지 아니하므로 행하였어도 갈 길이 갈 수 없으니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없으니 건축할 수 없으니 다시 하도록 무너뜨리고 다시하게 하느니라. 이건 선생님만 풀지 아무도 못 풀어요. 왜? 시대 말씀을 받은 자만 알고 다른 자들은 몰라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옛날 생가 터에다 기념관을 지었어요. 선생님이 나이 먹으면 못 올라간다고 엘리베이터를 놓았어요. 그 길이 막혔어요. 다 만들어놔는데 길이 없어서 못 다니겠다. 다시 그래서 거기서 말씀 나온 거예요. 옛날 식으로 안 하고 지금 식으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혹은 1년 마다 찾는 사람들 흠바닥 위에 앉게 두껍게 해서 흠침대는 한뼘쯤 넣어서 뜨끈뜨끈하게, 미네랄 흠으로 해서 해준다고 했어요. 다시금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다 뜯어내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 나온 거예요. 그대로 하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다 뜯어내고 본래 하나님 뜻인 대로 하기로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상한 것이 뜻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뜻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도 받기는 하는데 꿈이나 간접적으로 받고 큰 것은 못 받고 작은 것만 받습니다. 머리의 것은 머리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펴 나가면서 하나님 뜻을 펴시고 합니다. 말씀을 푸는 것이 뜻이에요. 말씀을 온전하게 풀어야 해요. 말씀을 푸는데 온전하게 못 풀어서 무너뜨려요. 건설치 않는다. 말씀을 보면 그때그때 신구약 성경만 말씀이 아니라 성약 말씀은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들어보지 않아 잘 모를 거예요. 이 시대 와서 들어본 사람만 알죠. 예수님 시대 때 구약에 있는 말씀 활용하지만 신약 말씀하시죠. 이것은 새 시대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시대도 뜻을 선포하신 거예요. 새 시대의 말씀이에요. 성서를 누구나 하나님 믿으나 예수님 통해 믿고 있는 자들이 성서의 말씀을 풀지 못한 것은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시금 3일 만에 육이 살아나서 하늘나라에 육으로 갔다. 하나님 옆에 갔다가 다시 재림 때 와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모두 심판하기 전에 자기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 올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할 것인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고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데 이걸 스스로 무너져요. 이와 같이 온전치 않은 말씀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하니 예수님 육으로 온다고 했는데 안 왔거든. 그래서 건설하지 않으신 거예요.

육신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펴는데 신부로서 휴거시킨다고 하는데 뜻이 아니라 2천 년이 지났는데 안 하시죠. 뜻이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오기를 바랬는데 안 왔거든. 그런데 나사렛 시골 촌에서 온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사 그를 쓰고 말했죠. 이와 같이 이 시대도 이 시대 사람 택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뜻을 펴신다는 거예요.

동시성 역사. 동시성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같은 역사를 보면 같은 역사를 펴 나갑니다. 가인 자손들이 항상 아벨 자손들을 반대합니다. 동질적인 역사고, 동시성적인 역사다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재림한다. 육신이 휴거한다. 그것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육신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도바울이 그랬죠. 죽는 것과 심판, 이것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계속 살았다고 해도 죽었습니다. 왜? 나이 들면 다 죽습니다. 십자가에 안 죽었어도 죽었어요. 육신이라.

또 하나는 말세 때 오면 불로 심판한다. 의로운 사람은 공중으로 한다. 지구 전체 심판도 없고 부분적으로 심판하셨죠. 그건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체 지구가 녹아지는 것은 뜻이 아니다. 말세론자 무너졌
죠? 파괴했죠, 건설치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고로 자기 뜻대로
주장하므로 그들은 이단에 속한자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을 믿어도 그들도 같은 자들이다. 모르는 게 이단이니라 했습니다.
아는 자 가지고 역사를 펴신다 했습니다. 휴거도 그것이 아니기 때
문에 무너뜨렸고, 육신이 올라간다고 옷 입고 기다리고, 말세론자도
무너졌죠.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부활도 육신이 부활했다. 예수님 오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지
구 세상에는 10, 20년 동안 살아난 자들이 없어요. 이런 자들만 살
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도 살린 것은 죽은지 10년 된
사람 살린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된 사람만 살렸습니다. 그래
서 육신이 부활한다. 이것도 뜻이 아니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
니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건설하지 않으시고 무너뜨렸죠. 그것만
구원받아서 되겠어요? 수십 억이 구원 받아도 하나님은 부족한데.
천주교도 기독교도 새로운 역사의 우리 섭리역사도, 모든 종교도 하
나님 뜻대로 하고 사는 자들은 구원받고 영생받고 있는데 그것 갖고
되겠어요? 조그마한 교파가 자기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모
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를 믿고 사는 자는 구원 받았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영생교들, 육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닌 얘기들은 다
파괴시킵니다. 무너뜨립니다.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누가 무너뜨리지

않아도 무너집니다.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산다. 그래서 그 최고 주장 하던 교주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믿고 있어요. 이와 같이 뜻이 아닌 것은 다 무너뜨려요.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이런 교리들은 모두 엄청난 교리들을 각각 주장하는데 뜻이 아니라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뜻인고로 그 말씀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죠. 많은 것이 필요없다니까.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통일교 같은 데도 예수님이 실패했다. 우리가 한다하지만 그것도 뜻이 아니라 무너진거죠. 알겠죠? 예수님은 실패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다 안 봤지만 핵심자 하나 갖고 운명이 좌우돼요. 그 시대 후손들 다 해당되지 않았습시다. 이와 같이 핵심자들이 못한 것은 전체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실패했다. 예수님 만인을 위해서 온 인류가 불신했다는 말이에요. 불신하고 배반하고 의심하고 그것이 온 인류가 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해서 최고 중형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죽고 대신 죽어줌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준 거예요. 그건 큰 일을 한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처음부터 잘 믿고 따랐으면 좋은데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실패한 것이고 예수님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메시아가 실패했으면 온 인류가 실패한 거예요. 다 제대로 풀어야 해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길이 막힌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잘 알겠죠? 예수님 실패했다는 교리는 잘못된 교리다. 알겠죠?

또 자기가 메시아라 하는 자들은 뜻이 아니므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안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면 무너뜨릴 것이라 했

어요.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많았죠. 뜻이었으면 계속 간다고 그랬
죠. 계속 가고 있죠. 이젠 예언지만 100년, 1000년 가도 계속 갑
니다. 모순이 없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절대적인 말씀이잖아요. 영이 영생하는 것을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
신이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데 변화되어 봤자 육이라니까. 그렇죠?
여자가 변화되어 봤자 여자에요. 남자가 변화해봤자 남자고. 육신이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육신이 변화되어서 홀연히 하늘나
라로 간다는데 아니었잖아. 그 보낸 자를 믿고, 주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육신은 땅에서 천국이 이뤄지고 영은 영계에서 이
뤄지고 영과 육이 완전 갈립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러면서 각 교파들, 종교인들 주장하는 교리들이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깨진 거로 보는 거예요. 무너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천 년 동안 가도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절대적인 휴거는 사랑으로
이룬다.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 성령 누군지 풀고, 성자 누구인지 풀
고 그 삼위일체 역사 가운데 마지막 이뤄진 역사입니다. 계속 역사
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도 뜻이 아니면 무너뜨립니다.

기도동산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또 험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콘크리트로 바닥을 했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 다 뜯어내서 흙
으로 하게 했어요. 뜻이 나를 위해 한다고 했는데 뜻이 아니면 무너
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기 수준 급으로 보기 때문에 높은 사람
수준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주장하는
것하고 어른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부자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돈 없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차원으로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해요. 큰 사람이 말한 것은 작은 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해주겠어요. 마귀와 사탄들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주관을 받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라는 이유를 대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괴롭게 하므로 깨우쳐주고 돌이키게 하고 그런 일을 온 세상에 하십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날 서류 행하듯이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그날그날 행할 것은 하시고 깨우쳐주시고 매일 하신다는 거예요. 뭉쳐났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것은 뭉쳐났다가 끝나기 보십니다. 그러면 끝나고 하시겠죠. 어느 것은 과정 중에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매일 칼을 가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칼을 가시는 하나님이라 표현했죠.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심판하고, 판사들이 말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말씀으로 검을 삼고 행하신다. 매일매일 행하십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듯 여러분 보시고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지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한 것은 무너뜨렸습니다. 모두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무너뜨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지가 지 보고 하시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따지고 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시대의 십자가도 예수님 십자가도 예수님 이단을 물러가라고 했죠. 그러나 전체로 볼 때는 물러나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주라도 여러분들 모를 때는 십자가 지고 갑니다. 모를 때는 그냥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개인도 모르면 십자가 안 지면 죽으니까 지고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그대로 대하면 안 되니까 십자가 져 주는 거예요. 십자가 대신 져 주고 갑니다. 살리기 위해서.

악령자, 마귀, 사탄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고로 무너뜨리십니다. 그들 주장대로 건설치 않으십니다. 이걸 100%입니다. 가만 놔둬도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다리 누가 안 건드려도 무너집니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아요. 구약서 신약까지 악인들이 한 것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갑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로 쓰면 뜻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푼 말씀이 뜻이니라. 뜻이 있어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까지도 오해하고 행합니다. 뜻이 아닌 일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무너집니다. 뜻이 아닌 것은 천사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자도 무너뜨리고 온전한 영이 무너뜨리고 합니다. 다 무너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금주 말씀의 본문을 보고 행하신 일들이예요. 본문 보고 몰랐죠. 구약말씀으로 본문을 할 수가 없었죠. 받은 자만 세세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읽었죠. 선생님 말씀 받은 것은 핵심말씀이고 구약 말씀은 참고성구이죠. 본문 말씀은 항상 받은 자가 해야하기 때문에 이제 꺼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시킨대로 안 하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 올라가지 않으면 기도동산 길 못 올라갑니다. 본래 하나님 뜻대로 그리로 가게 하면 기도동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 가

지 엘리베이터 타고 2층 올라가는 것은 참 좋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할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근본 말씀을 깨닫게 했죠. 그렇게 할 때 좋아집니다. 몸이 아프더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좋은데 뜻대로 안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대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역시 나머지는 참고성경.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 시대 말씀은 아무리 못하는가 하니 핵으로 삼고 본문말씀으로 삼고 행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 이만치 했으면 핵은 알아 듣습니다. 내일 수요일 말씀도 써서 보냈습니다. 교역자들이 전하면서 깨달은 거 있으면 더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해주는 날이네요. 아픈 사람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힘내라고 기도해주고. 어제도 아픈 자가 왔는데 의학으로는 낫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갔더라고. 그래서 약수가 있고 기도한 것이 있다. 불가능한 자들이 약수 먹고 나왔다. 약수를 많이 먹어라 했어요. 약수를 하루 7잔 먹었대요. 이만큼한 잔에 7잔 씩 먹었대요. 90일 동안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약수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어느날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많이 먹어야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서 알아보게 표가 난다. 7잔 씩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다고 하더라고. 많이 먹어요. 바깥에도 똑같은 영향을 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굴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많이 먹고 해야 되겠어요. 조금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기도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있기로 편지를 했어요. 사람 음식 먹는 것이 라면을 주식으로 삼고 살더라고. 15년 동안 그랬대요. 약수 먹고 기도하면 낫어. 내가 한 기록이 있으니까. 20대 때도 기도해서 낫게 해줬으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낫게 했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전도하고 다닐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고치는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고쳐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 고쳐주는 은사를 줬으니까 써먹어야지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줬으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40번을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 데려와서 했는데 못하니까 내 혼이 가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꼭 믿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수만 번 손을 대요.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손대고 성령님 손대고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아져라 했죠. 아픈자들이 걱정됩니다. 약수가 있다. 암도 고치는 약수가 있다. 한 두명 고친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에요. 절대적인 약수가 있다. 그렇게 빨리 고치는 약수가 어디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줬기 때문에 고쳐주는 거예요. 주를 상징으로 해서 준 약수입니다. 하나님 상징 물이에요. 성자를 상징한 물이 약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한 것이 전이에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에 한 번씩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절대시하고 실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좋은 것이 있어요. 악평하는 자들은 악평하는데 그것은 모독하는 짓들이에요. 수만 명 나왔어요.

나도 나왔어요. 무릎도 쭈시고 아프고 물 차고 그랬는데 약수 먹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각종 병들이 약수 먹고 나왔어요. 나는 어떤 약을 먹을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1500만원짜리 산삼이 들어왔는데 안 먹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귀한 약수를 귀하게 안

여기더라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먹고 났더라고. 그건 표적이다. 안 아픈 사람도 계속 먹어라.

약수 먹는데 미국에서는 편지가 왔어요. 미국에서는 약수 먹었는데 코로나가 걸렸는데 나았다고 편지가 왔어요. 걸린 것을 조사해서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약수가 이런 일을 해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팔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약수도 먹을 사람은 먹었을 거예요. 기도해주겠습니다.

각종 사연을 기도해줄테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나올 거예요. 한 번에 낫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번 기도 해서 나았단니까. 귀머거리가 됐어요. 귀가 안 들리고. 역시 그도 21번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지금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그거 너무 신경쓰면 안 돼요. 이명 소리 다 들리고 그래요. 신경쓰면 더 그렇게 됩니다. 한 번도 소리가 안 나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